

인쇄단체 · 기관뉴스

1 동정

- ▶ 박희준 대구경북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은 지난 10월 8일 월간 '인쇄하는 사람들' 지령 100호 발간 기념식을 가졌다.
- ▶ 한국계 미국 출판인 지영석 씨가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기간에 열린 국제출판협회(IPA) 총회에서 IPA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 씨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지 씨는 랜덤하우스 아시아 초대 회장을 지냈고 현재 네덜란드계 다국적 출판회사인 엘스비어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 ▶ 윤형두 범우출판재단 이사장은 지난 9월 28일 파주출판단지 내의 범우사에서 범우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범우장학회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이 된다.
- ▶ 이용준 한국디지털퍼블리싱포럼 의장(대진대 교수)은 대전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 12층 대회실에서 '한국 전자책 산업의 현실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 ▶ 정준영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은 11월 21일까지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106호 오목진 각자장과 이수자들의 나무새김 특별전 '각연전'을 개최한다.
- ▶ 이원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10월 22일 대구에서 2010년 하반기 이사장협의회를 개최했다.
- ▶ 서상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산악회 회장은 지난 10월 24일 제31차 정기산행을 충북 괴산군소재의 신선봉에서 가졌다.
- ▶ 이수범 한국코닥 부사장은 최근 동사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 부음

- ▶ 김종진 서진실업 사장이 지난 9월 19일 별세했다.
- ▶ 강영흔 인정지류판매(주) 대표의 빙부가 지난 9월 27일 별세했다.
- ▶ 김기태 에이스기계(주) 영업이사의 빙부가 지난 10월 11일 별세했다.
- ▶ 박세웅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직원의 부친이 지난 10월 14일 별세했다.

인협, 인쇄전문인력 양성과정 하반기 수강생 모집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인쇄문화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무상 교육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실시하고 있다.

인쇄물 편집교정 실무과정(매주 화요일), 인쇄물 수출전문가 과정(매주 목요일) 등 2개 과목이 개설되며 11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주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련교재 또한 무상 제공된다. 한편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신청서를 인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1과정당 25명씩 선착순 마감한다.

홈페이지_ www.print.or.kr, 전화 (02)335-5881

서울인쇄조합, 인쇄학과 재학생 일본인쇄산업 현장 투어 실시

일진PMS(주)(대표이사 박경재)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시인쇄정보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과 함께 인쇄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일본 고모리 인쇄기 생산 공장인 쓰쿠바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투어를 실시했다



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인쇄조합과 일진PMS의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동방인쇄공사 허성운 사장을 단장으로 서울공업고등학교 재학생 6명, 서울북공업고등학교 재학생 6명, 부경대학교, 중부대학교, 신구대학의 재학생 각 2명씩, 그리고 인쇄교사와 조합직원 및 일진직원을 포함 총 24명의 팀으로 구성 됐다. 방문 첫째 날은 쓰쿠바에 위치한 고모리 인쇄기 생산공장을, 둘째 날에는 도쿄에 소재한-dot판인쇄박물관과 친환경 인쇄를 실시하고 있는 미즈카미인쇄를 견학했으며 셋째 날에는 아타미와 하코네를 돌아보면서 일본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허성운 단장은 "사흘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투어를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을 바탕으로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인쇄업계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일본 인쇄관련 매체의 취재진들이 몰려 한국 학생단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일본국제인쇄대학의 키노시타 교수를 비롯하여 일본내 인쇄관련 학교 및 학과의 교수진들이 모여 한일간 인쇄교육교류에 대한 뜻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울인쇄센터 공동이용장비 설명회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3시 2층 회의실에서 <서울인쇄센터 공동이용장비 설명회>를 가졌다. 인쇄센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신익재 교수는 “CTP를 구입할 예정



인 인쇄사들이 시범적으로 직접 사용해 봄으로써 CTP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 지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계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서울인쇄센터에서는 공동이용장비의 관리, 유지보수 및 이용환경의 제공, 운영요원의 관리 교육을 담당하고, CTP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공동이용을 원하는 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소요비용을 산출 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인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수프라세터(하이델 CTP 서멀 무현상판), 프리넥(하이델베르크 워크플로), 아포지 프리프레스(아그파 워크플로), 트루넷(다이니폰스크린 워크플로) 등 프리프레스 장비와 후지제록스 D700 디지털인쇄기 등이다.

문의_ 02-2278-3081

동국대RIS사업단, 서울인쇄센터 친환경 인쇄 세미나

동국대 RIS 사업단과 (재)서울인쇄센터, 월간 PT는 공동으로 친환경 인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인쇄정보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그파코리아(주), 대한잉크(주), 뱌처코리아(주), 한솔제지(주)의 협찬과 지식경제부, 대한인쇄기술협회, 일본인쇄산업연합회, 일본 환경보호인쇄추진협의회(E3PA)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친환경 인쇄 세미나는 친환경 인쇄의 필요성과 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인쇄업계에 실질적인 친환경 인쇄의 필요성과 접근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쇄산업연합회와 일본 환경보호인쇄추진협의회의 실무진들을 초청, ‘일본 인쇄 친환경 트렌드 및 E3PA 활동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며 국내에서 친환경 인쇄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아그파코리아, 대한잉크, 뱌처코리아, 한솔제지에서 국내 인쇄업계에 실질적인 도움과 적용 가능한 친환경 인쇄에 대한 틀과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인쇄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한편, 동국대 RIS 사업단에서는 ‘수출을 위한 친환경 트렌드’를, 서울인쇄센터에서는 ‘친환경 인쇄진흥을 위한 사업 방안’을 통해 인쇄업계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예정

3 화족

- ▶ **이상익** 한신인쇄(주) 대표이사의 장녀 은영 양이 지난 10월 3일 한강호텔웨딩홀 5층에서 화족을 밝혔다.
- ▶ **윤만준** 대동문화(주) 대표이사의 장녀 서영 양이 지난 10월 9일 KBS 신관웨딩홀에서 화족을 밝혔다.
- ▶ **김용환** (주)신안사 대표이사의 장녀 정미 양이 지난 10월 15일 노블레스웨딩컨벤션 18층 노블레스홀에서 화족을 밝혔다.
- ▶ **이병을** 정광인쇄(주) 대표이사의 장녀 지민 양이 지난 10월 23일 포스코센터 아모르시오 웨딩홀에서 화족을 밝혔다.
- ▶ **김충한** 한국이엔엑스 회장의 아들 건동군이 지난 10월 23일 청담동 성당에서 화족을 밝혔다.

4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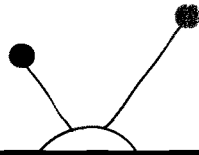
- ▶ **상일인쇄(대표 송정수)**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7-2 202호로 이전했다.

5 변경

- ▶ **참기획(대표 정대웅)**은 최근 업체 명을 카피에도로 변경했다.
- ▶ **탐구당문화사는** 최근 대표자가 홍정수씨로 변경됐다.
- ▶ **(주)신성외아케이문화는** 최근 업체 명을 (주)프린트맥스로 바꾸고, 대표자도 박혜선 씨에서 서정희 씨로 변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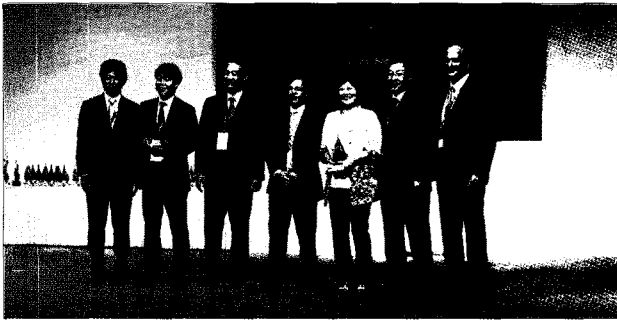
도서정가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해 8개 출판·서점 단체들은 신간 도서의 할인율을 최대 19% 허용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재산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가 재산권 및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인쇄산업연합회 류이 요시하루 부장의 '일본인쇄 친환경 트렌드', 환경보호인쇄추진협의회 기따노씨의 'E3PA활동사례'에 대한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팩컴, Dscoop Asia 2010에서 수상



팩컴(대표 김경수)은 최근 열린 HP의 인디고 디지털 프린터 사용자들의 독립 커뮤니티인 Dscoop Asia 2010에서 수상을 했다고 발표했다. HP 아태지역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인 offset vs HP Digital printing 부문에서 수상한 것으로 대형오프셋 출력물과 비교해서도 색감 및 인쇄품질이 뛰어나게 구현되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경수 대표는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인쇄문화를 선도하며 동시에 세계적으로 한국의 인쇄기술을 알리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HP 아태지역 디지털 프린트 어워드는 지난 5년간 미국에서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뛰어난 인쇄작품들이 출품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상작들을 공유하는 권위 있는 어워드로 평가받고 있다.

청주시, 조선시대 활자 44종 복원 공개

청주시는 지난 10월 12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어 2007년부터 4년간 복원한 조선시대 활자 44종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을 책임연구원으로 청주대 한국문화연구소,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실 등이 공동연구했으며 중요 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인 임인호씨가 복원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청주시는 내년부터 4년간 직지와 증도가 등을 발간할 때 사용했던 고려 금속활자 5종을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쇄 · 프리프레스뉴스

성우애드컴, 호평 · 수상 · 표창 등 3관왕 겹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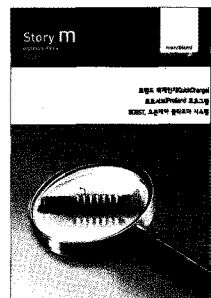
(주)성우애드컴(대표 이민성)이 지난 10월 9일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연이은 겹경사를 맞았다. 국제인쇄산업전 명함접수 1천건 돌파 및 서울인쇄대상 수상, 대한인쇄문화협회장 표창 수상 등이 그것이다.

성우애드컴은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인쇄산업전(이하 KIPES2010)'에 참가해 특허청에 특허출원 및 실용실안 등록한 예폭시명함(브랜드명:이노폭시)의 공개 전시행사를 가졌다. 지난 전시회에 이어 이노폭시 명함 현장주문을 받은 성우애드컴은 기간 중 현장접수 1천 건 돌파, 20여 지방 대리점 및 전국 딜러들을 모집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방대리점 및 전국 딜러가맹문의가 전시회가 끝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5회 서울인쇄대상에서 자체 발행한 '국립과천과학관 연보'로 입선하였다.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0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의 실적과 실력을 인정받아 김재원 디자인 팀 실장이 대한인쇄문화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만로랜드코리아, 소식지 'Story M' 2호 발행

만로랜드코리아(주)(대표이사 케네스 엠 한센)는 한국 고객 소식지인 <Story m> 2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는 '생산 준비 시간을 단축하는 로랜드 콕체인지'를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있으며 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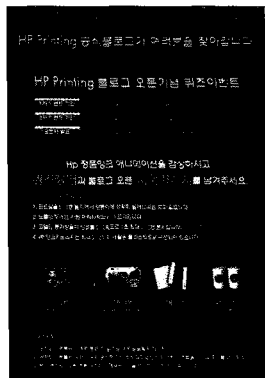
네스 엠 한센 회장의 인사말, 인쇄기 유지보수를 위한 만로랜드 프로서브 프로그램, 인쇄물에 꿈을 담은 영신사, 로랜드 인라인코터 스마트, BOBST, 오픈에어 플라즈마 시스템, 만로랜드코리아 뉴스, 만로랜드 본사 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네스 엠 한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시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집으로 소개된 프로서브 프로그램은 인쇄기 유지보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부서의 팀워크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로랜드 인라인코터 스마트와 BOBST의 오픈에어 플라즈마 시스템을 통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쇄 관련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만로랜드 코리아 뉴스와 만로랜드 본사 뉴스를 통해 최근 만로랜드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다. 문의_02-777-5271

한국HP 이미징 프린팅 사업부 프린팅 공식 블로그 'HP Printing' 오픈

한국 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10월 4일 이미징 프린팅 사업부의 공식 블로그인 'HP Printing' (<http://hpprinting.co.kr>)을 오픈하고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HP Printing 블로그는 '라이프스타일 프린팅'을 콘셉트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프린팅에 대한 이야기, HP의 프린팅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 유용한 제품 사용팁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HP는 공식 블로그 오픈을 통해 '프린팅'이 단순 하드웨어를 넘어 다양한 이미지와 콘텐츠를 포괄하는 의미인 만큼 보다 흥미로운 콘텐츠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HP Printing 블로그는 ▲HP 라이프스타일 ▲HP 프린팅 팁 ▲HP 이벤트 ▲HP 뉴스 ▲HP 추천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HP 라이프스타일'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린팅 활용 노하우를 공유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고, 'HP 프린팅 팁'은 HP 프린터 및 소모품의 올바른 유지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이 밖에도 HP Printing블로그에서는 HP의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HP 고객사 초청행사 등 HP이미징프린팅 사업부의 이모저모를 알 수 있는 생생한 취재 일기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의 김상현 전무는 "HP는 이번 HP Printing 블로그 오픈을 통해 프린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후 HP는 유용한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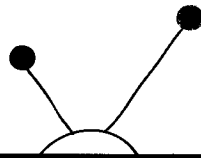
한국HP, 실시간 제품 컨설팅 프로모션 실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9월 27일 HP제품사용자간의 기술 지원 및 지식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HP 지식커뮤니티' (<http://www.hp.co.kr/support/hpcommunity>)에서 HP 전문 테크니션들이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품 컨설팅을 해주는 'HP 고수들이 온다'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HP 지식 커뮤니티의 '프린터 및 복합기'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HP 전문 테크니션들이 실시간으로 제품 컨설팅을 진행했다. 'HP 고수들이 온다' 행사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돕기 위한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었다. 소비자들은 작성한 질문에 HP 전문 테크니션의 답변이 등록되면,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질문 작성 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옵션 메뉴 중 '이 메시지에 대한 업데이트 이메일 알림 받기'를 선택하면,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 알림 메일이 발송된다.

지난 2009년 11월 16일 개설된 'HP 지식 커뮤니티'는 HP 제품 사용자간의 기술 지원과 지식 공유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소비자들은 프린터 및 복합기, PC관련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설치 및 사용 방법, 제품 정보 등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HP의 온라인 측정 수치에 따르면 2009년에만 약 1600만명의 고객들이 방문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의 김상현 전무는 "제품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용자들에게 보다 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HP는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HP 고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소코리아, 전 직원 워크숍 개최

(주)리소코리아(대표이사 우에무라 사토시)는 지난 10월 15일~16일 이틀간에 걸쳐 강촌 알레시안 리조트에서 '2010년 하반기 전망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리소코리아 전 직원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0년 상반기 진행 업무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인쇄시장 분석과 리소코리아 하반기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고 하반기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한 도전의식 고취 및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우에무라 사토시 대표는 "앞으로도 인쇄시장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으며 하반기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닥터 X 오피스 어택' 이벤트 개최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대표 황유천)는 지난 10월 11일 중소기업 직장인 사기 진작 이벤트 '닥터 X 오피스 어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회를 맞은 이번 '닥터 X 오피스 어택'은 지난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직장인들에게 휴식과 건강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는 지난 2010년 8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응모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도호환경 디자인, 동대문경찰서, IBM 등 총 5곳이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의 브랜드 아이콘 닥터X는 선정된 5개 회사를 기습 방문해 모노 레이저 복합기(Phaser 3100MFP)와 컬러 레이저 프린터(DPC1110N)를 선물했다. 이와 더불어 간단한 건강 요가 클래스 시간을 갖고, 비타민 E

가 풍부해 두통 개선 등에 좋은 캘리포니아 아몬드를 선물해 직원들에게 신선한 휴식의 시간을 제공했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마케팅 팀 백민정 차장은 "‘닥터 X 오피스 어택’을 통해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신선한 휴식을 제공하고, 고성능 프린터 제공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후지제록스 프린터스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오피스 어택 이벤트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후지제록스, 10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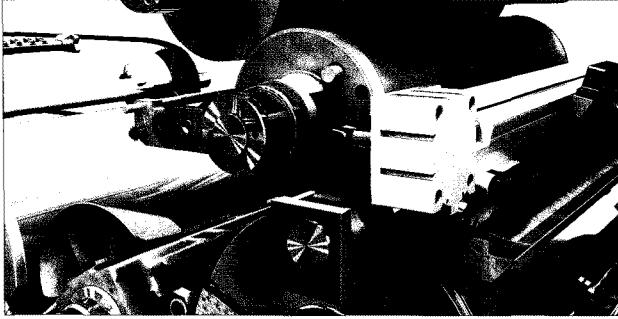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10월 1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0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10년 연속 복사기 부문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전국 성인 남녀 1만 7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후지제록스는 전반적 만족도, 요소 만족도 등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10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특히 요소 만족도의 조사 항목 중 복사 선명도, 유지관리비의 적절성, AS 만족도 등에서 응답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후지제록스 우에노 야사키 사장은 "10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달성은 업계 최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하며 "고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고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제품 · 제품관련 뉴스

효율성 보장하는 만로랜드 로랜드 인라인코터 스마트



만로랜드는 자사의 인라인코터 스마트가 안정적이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고객들의 높은 수익성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니록스 코팅 모듈이 장착된 인라인 코팅시스템은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일반화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일에 코팅을 입히는 포장 인쇄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 인쇄에서도 이러한 인라인 코팅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때때로 코팅이 필요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만로랜드는 밝혔다.

코팅 작업의 범위가 30% 이하인 상황에서 큰 비용을 들여 100% 코팅 작업에 대비한 코팅 유닛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그 비용적 측면이나 생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인데 이러한 코팅 작업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효과성 측면에서 기존 장비에 코팅 유닛을 추가하여 하나의 업그레이드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목적에서 개발된 만로랜드의 인라인 코팅 장치, 인라인코터 스마트는 고객의 경제적 이익과 투자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고 만로랜드는 전했다.

로랜드 인라인코터 스마트는 때때로 박엽지나 얇은 마닐라지에, 수성 코팅(제품보호, 무광, 유광 코팅)을 입힐 경우에 유용한 업그레이드 장비로서 본 인라인코터 스마트를 활용한 수성 코팅의 주된 목적은 인쇄물의 보호적 측면이 강하다. 로랜드 인라인코터 스마트는 ROLAND 700 하이프린트 편면 및 양면 시스템 모두에 적용 가능하며 마지막 유닛에 설치된다. 아울러 로랜드 인라인코터 스마트를 장착한 마지막 인쇄 유닛

은 인쇄에서 코팅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의 전환이 쉽고 간단하여 짧은 시간에 바로 작업 전환이 가능하다. 즉, 코팅 모드에서 인쇄 모드로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반대 모드로도 마찬가지이다.

성도솔루션, 웹 편집 솔루션 런칭

(주)성도솔루션 (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KIPES 2010에서 선보였던 웹 상에서 편집물을 작성하는 차세대 편집솔루션 (WebTop Print Shop)에 인쇄주문시스템, 웹하드 기능이 부가된 현수막용 WebTop Banner를 런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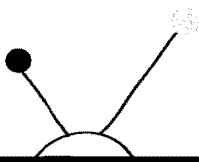


성도솔루션의 WebTop 솔루션은 기존의 매킨토시 및 윈도우 PC에서 편집/디자인 프로그램(Quark, InDesign, MLayout, Illustrator, Photoshop) 사용 방식을 탈피, 편집/디자인 프로그램, 서체 및 디자이너 없이도 누구나 쉽게 웹브라우저 상에서 원하는 편집을 가능하게 했다. 'WebTop Banner'는 Web 2.0 기술을 사용하여 별도의 설치가 필요없는 온라인 편집 프로그램으로 디자이너에 의해 제작된 템플릿을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다.

특히, 사용자 관점에서 재 디자인한 레이아웃과 워크플로를 제공하며 배경 및 메뉴 바 등의 웹사이트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기능과 사용자와의 원활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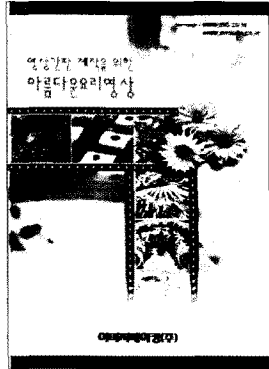
이 솔루션은 현수막용 외에도 명함, 카드, 포토앨범에 제품 카탈로그, 브로슈어, 신문, 잡지 등 고객의 용도에 맞는 프로그램으로도 추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 솔루션에 대한 상세 내용 및 다양한 편집 기능은 www.iedit.net나 www.banner.iedit.net(실사출력 전용)에 접속해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미지메이킹, 영상간판광고 소스 공급

이미지메이킹(대표 윤원구)는 영상광고를 위한 음식영상소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메이킹은 현재 적지 않은 인쇄업체가 영상광고 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리 영상소스를 구입하고 진출한 업체는 다양한 형태의 영상간판을 제작하여 업소에 설치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실제로 영상간판과 광고를 제작하여 납품해 본 업체들은 고객들이 광고효과에 만족하고 소개했다. 이미지메이킹은 영상소스 공급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본사에서 영상광고간판제작의 무료교육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_ www. sk5. co. kr

한국오키, A4프린터 8종 출시

한국오키시스템즈(대표 유동준)는 지난 10월 18일 프린터 8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들은 출력속도와 인쇄품질이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은 물론 사용자 편의성과 유지비용을 고려 네트워크 기능과 양면인쇄장치를 기본 탑재하고 있다. 여기에 에코모드(ECO-mode) 기능과 고용량 초미립자 토너를 활용 최소한의 전력과 토너사용으로 고해상도 출력을 할 수 있어 유지비용 절감에 한 번 더 신경을 썼다. 최근 프린터 시장이 속도, 해상도 등과 같은 제품 스펙 경쟁에서 사용자 편의성과 유지비용 경쟁으로 옮겨가면서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고 유지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제품을 선보인 것. 고속, 고해상도 출력에 사용자 편의성, 유지비용 절감까지 더해 한 번에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신기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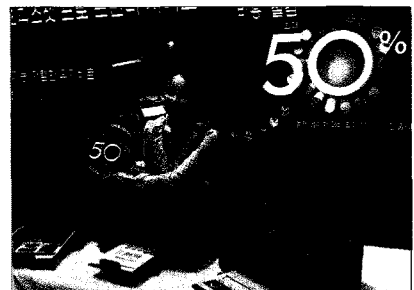
이번 신제품들은 일반 개인 및 소규모 워크그룹용 흑백프린터 2종(B411dn, B431dn)과 컬러프린터 4종(C310dn,

C330dn, C510dn, C530dn), 대규모 워크그룹용 컬러프린터 2종(C610n, C711n)으로 모두 A4제품들이다.

한국오키시스템즈 유동준 대표는 “최근 프린터 시장은 사용자 편의성과 유지비용에 특히 더 초점을 맞춰 움직이고 있고 이번 신제품들 또한 이러한 시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 말하고 “이번 A4 신제품들이 A3 프린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키의 점유율을 A4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키의 점유율 확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국HP, 동급 레이저 대비 50% 경제적인 오피스젯 복합기 출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10월 14일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서나 인쇄를 할 수 있는 HP ePrint 기능을 갖춘



‘HP 오피스젯 e-복합기 시리즈’ 5종(HP 오피스젯 6500A e-복합기 / HP 오피스젯 6500A 플러스 e-복합기/HP 오피스젯 7500A 와이드 포맷 e-복합기/HP 오피스젯 프로 8500A e-복합기/ HP 오피스젯 프로 8500A 플러스 e-복합기)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제품 ‘HP 오피스젯e-복합기 시리즈’는 동급 컬러 레이저 제품 대비 장당 출력비용을 50% 절감 2009년 바이어 랩이 실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바이어 랩(Buyers Laboratory)은 HP의 의뢰로 HP 오피스젯 6500과 HP 오피스젯 프로 8500 시리즈 프린터를 델 2135cn과 삼성 CLX-3175FN 프린터와 비교 조사했다.

‘HP 오피스젯e-복합기 시리즈’는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모드에서 최대 분당 흑백 출력 35장, 컬러 출력 34장으로 소규모 사업장 및 2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컬러 레이저 프린터보다 더 낮은 비용과 빠른 출력 속도로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을 돕는다. 특히, 이번 HP 오피스젯 e-복합기 신제품은 클라우드 프린팅이 가

능한 'HP ePrint' 기술이 적용되어 전 세계 어디서든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 PC나 휴대용 기기로부터 원하는 파일을 출력할 수 있다. 인터넷 및 이메일이 지원되는 애플 아이패드 (Apple iPad), 아이팟 터치 아이팟 터치(iPod touch), iOS 4.2 아이폰 기기로부터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

한국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의 김상현 전무는 "HP는 컨슈머 제품인 포토스마트에 이어 소호 및 SMB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오피스젯에도 ePrint 기능을 갖춘 복합기를 선보임으로써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비즈니스 고객들의 업무 효율에 더 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직장인 점심 반값 지원 및 3D TV, 아이패드 등 실질적으로 직장인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HP, 'HP 포토스마트 e-복합기' 5종 출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10월 7일 프린팅 업계 최초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출력이 가능한 이프린트(e-Print)기술이 적용된 포토스마트 5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포토스마트(Photosmart) 제품군은 ▲P 포토스마트 e-복합기 B110a ▲P 포토스마트 플러스 e-복합기 B210a ▲P 포토스마트 프리미엄 e-복합기 C310a ▲P 포토스마트 프리미엄 팩스 e-복합기 C410a ▲P ENVY e-복합기 D410a 총 5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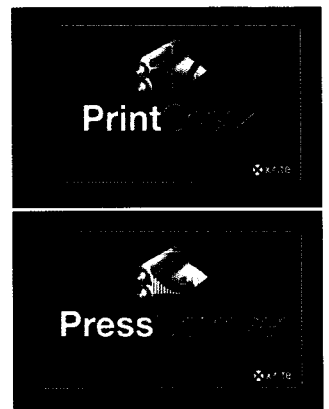
이들 제품은 복합기에 이메일 주소를 부여해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에서 'HP 포토스마트e-복합기'로 메일을 보내면 장소의 제약 없이 출력 전송 및 확인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HP의 이프린트(ePrint)가 가능한 프린터로 PC 없이도 웹에서 원하는 무료 콘텐츠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뉴스, 지도, 색칠공부, 캘린더 등 자주 사용하는 프린트 애플리케이션(Print App)을 다운받아 복합기 터치패널에 설정하면 개인별 맞춤형 복합기가 완성된다.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 이미징 프린팅 그룹 컨슈머 및 잉크젯 웹솔루션 사업부 티안 총(Ng Tian Chong) 부사장은 "HP는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HP의 포토스마트 제품군을 통해 프린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머신

X-Rite PrintCheck & PressOptimizer 출시

X-Rite 국내 딜러인 미디어머신(대표이사 장영엽)은 X-Rite사의 신제품 PrintCheck와 PressOptimizer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인쇄 표준화 및 인쇄 프로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PtintCheck와 PressOptimizer는 사용법이 간단하여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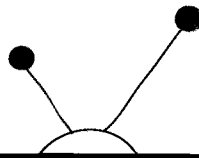


인쇄 환경 및 인쇄물에 대해 쉽게 리포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 어렵게 생각해왔던 인쇄 표준화 작업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QC에서 역시 인쇄물에 대한 품질을 쉽게 관리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X-Rite의 Eye-One, 500Series, Intellitrax, Easytrax등 X-Rite 장비와 100% 호환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Auto Scanning 장비인 IntelliTrax와 EasyTrax와의 호환성을 통해 인쇄 표준화 작업의 시간을 최소로 단축 시켰다. X-Rite의 신제품인 PrintCheck와 PressOptimizer를 통해 어렵게 생각되었던 인쇄 표준화 및QC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니, 알파 33/55 출시

소니코리아(대표 이토키 기미히로)는 지난 10월 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새로운 DSLT 카메라 '알파 55(SLT-A55)'와 '알파 33(SLT-A33)' 신제품 출시 행사를 가졌다.

알파 55와 알파 33은 렌즈 교환식 디지털 카메라로는 세계 최초로 반투명 미러 기술 (Translucent Mirror Technology)을 도입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다. 기존 DSLR 카메라의 미러 박스를 반투명 미러가 장착된 미러 박스로 대체한 알파 55와 알파 33은 TTL 위상차 검출을 통해 움직이는 피사체에 포커싱을 놓치지 않는 연속 AF 동영상 촬영과 알파 55 기준 최대 초당 10매의 고속 연사를 지원한다. 반투명 미러 기술의 도입으로 기존 제품인 알파 550 대비 약 23%나 작아진 소형 디자인을 가지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구현하게 되었다.

알파 55와 알파 33은 세계 최초로 풀HD AVCHD 동영상 (1920×1080/ 60i)을 촬영할 때 연속 TTL 위상차 검출 AF를 사용한다. 빠르고 정확한 위상차 검출 AF센서가 계속해서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향해 다가오거나 카메라로부터 멀어지는 피사체의 초점을 쉽게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렌즈를 통해 영화 같은 배경 흐림 처리가 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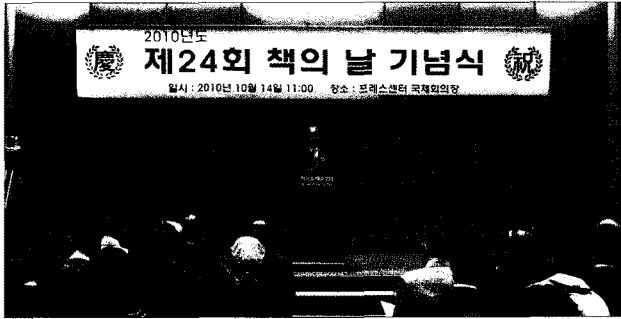
소니가 새롭게 개발한 반투명 미러 기술은 셔터를 누를 때마다 카메라 내부의 미러를 움직일 필요가 없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렌즈를 통과하는 빛이 이미지 센서와 AF센서로 동시에 전달되어 이전에는 구현하기 힘들었던 속도의 연속 촬영과 연속 포커싱이 가능하다.

알파 55와 알파 33에 장착된 신개발 15포인트 TTL 위상차 검출 AF시스템은 프레임 중앙부에 3개의 크로스 센서가 수직으로 배치되는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고정밀 고속AF 시스템이 뷰파인더를 사용할 때뿐 만 아니라 라이브 뷰 모드에서 사용될 때에도 작동 상태를 유지해 사용자들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상관없이 빠르고 정확한 AF를 경험할 수 있다.

알파 55와 알파 33의 스윕 파노라마 (Sweep Panorama) 모드를 사용해 고품질의 3D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알파NEX-5/3 모델에 적용된 스윕 파노라마 기술을 사용해, 말 그대로 프레임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현실적인 3D 파노라마 정지 이미지를 스냅 촬영할 수 있으며, 옵션으로 제공되는 HDMI 케이블을 통해 3D TV와도 호환이 가능하다.

출판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24회 '책의 날' 기념식 신병태 사장, 출판 유공자상 수상



신병태 대한문화인쇄 사장이 지난 10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책의 날' 기념식에서 출판유공자상을 수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념사에 이어 정부포상, 제40회 한국출판공로상, 2010년도 관련업계 출판 유공자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스물네 돌을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강희일 다산출판사 대표가 학술·전문도서 출판 발전과 우수학술도서 선정제도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훈장 옥관장을, 류제동 (주)교문사 대표가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양서 발간 및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그 외 국무총리상, 문화부장관상 등 정부 표창자 26명을 비롯해 출협 협회장상인 제40회 한국출판공로상, 관련업계 출판유공자상, 모범장서가상 등 총 수상자 36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기념식 2부 행사로 '책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국민 독서진흥 및 독서를 통한 정서함양을 위해 한국책이

제, 다산출판사, 양서원 등 11개 출판사로부터 기증받은 일반 교양도서 2000여 권의 도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책 나눔 행사’ (10월 14일 오후 2시 교보문고 광화문점)가 교보문고와 함께 진행되었다.

한국출판학회, 제12회 한·중 출판학술회의 개최



한국출판학회(회장 이정춘)는 지난 10월 13일 중앙대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한중 출판 저작권 교류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2회 한·중 출판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출판 저작권 교류’를 주제로 하여 한국과 중국의 저명한 학자, 출판인들이 발제와 토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양국 간에 실질적인 출판 정보와 우애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정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 간의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시작한 학술회의가 어느덧 12회째를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 공유는 물론 학문적, 인적 교류효과를 상승시키는 자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학술발표회에서는 △한·중 출판교류 현황과 발전 구상(시량웬 중국출판과학 연구소 처장), △한·중 출판 저작권 교류 현황과 전망(박몽구 순천향대 국문과 외래교수), △중국 출판업계 수출입 상황 및 전망(수전차이 중국출판과학연구소 출판발행연구잡지사 주임), △한·중 출판저작권 대리점 현황과 그 특징(김진두 서일대학 미디어출판과 교수), △세계금융위기 대응에서 보여준 중국신문출판업의 성과(관쥘 중국출판과학연구소 부소장), △한·중 전자출판의 현황과 저작권 교류 전망(이용준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디지털시대의 열독과 출판(쉬성귀 중국출판과학연구소 주임), △중국 판권교역 발전루트에 대한 탐구(중국출판과학연구소 상무부사장)에 대해 발표했다.

출협, 대한민국 출판문화상 제정 및 첫 시행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출판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출판문화상’을 제정해 올해 12월 첫 시상식을 갖는다. 본 시상 제도는 그동안 출협이 한국출판문화대상과 한국어린이도서상으로 나누어 시행해온 시상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명실공히 출판계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시상 제도로 키운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본 시상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기획물, 일반 단행본, 어린이 도서 위주로 시행했던 기존 시상제도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됐던 학술과 실용 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출판 전 분야에 걸친 시상제도의 틀을 갖췄다는 점이다. 또한 출협에 납본을 필한 도서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납본을 근거로 각종 출판통계를 산출하는 출협의 통계자료 구축의 정확성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상 분야는 △모든 출판물을 대상으로 우수작을 선정하는 출판문화대상과 △부문별(아동, 학술, 일반, 실용) 우수작을 뽑는 출판상, △부문별 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상 등 총 3개 분야의 우수 출판물 17종이며, 시상금은 출판문화대상 상금 500만원을 포함해 총 3700만원이다.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책 취업자 교육과정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오는 11월 16일부터 ‘취업자를 위한 전자책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취업자를 위한 전자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은 창업비즈니스 과정, 전자책 개발자 과정, 모바일 전자책 개발자 과정, 전략 비즈니스 과정 등 4개의 과정 총 72시간으로 진행된다. 한국전자출판협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아이폰, 갤럭시S 등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책은 물론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태블릿PC 기반의 전자책을 기획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집중 교육하여, 교육 후 현장에서 바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온 ‘유비쿼터스출판아카데미’ 과정을 올해에는 창업비즈니스과정, 전자책개발자과정, 모바일 전자책개발자과정, 전략비즈니스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문의_ (031)955-0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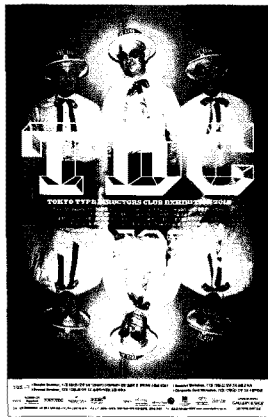


제지뉴스

삼원페이퍼갤러리, 'Tokyo TDC 2010 서울' 전

삼원페이퍼(대표 이연옥)는 오는 2011년 1월 8일까지 군자동에 위치한 삼원페이퍼갤러리에서 Tokyo TDC2010서울전시회를 개최한다.

문자의 조형성, 예술성, 실험적 요소를 바탕으로 타이포그래피의 다양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는 'Tokyo TDC 2010 Seoul' 실험적인 무한상상, 타이포그래피의 경계를 허물다 전'은 2007년의 1회 전시회에 이어 서울에서는 4회째 개최되는 전시로 세계적 공모전인 Tokyo TDC Awards 2010의 수상작 및 우수작 작품 2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삼원페이퍼갤러리는 타쿠 사토, D-BROS, Non-Format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대규모 상업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부터 디자인에 열정이 있는 아마추어 디자이너들의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삼원페이퍼갤러리는 이번 전시회 기간인 11월 6일 오후2시에 '존 워윅커(John Warwicker)'를 초청, 특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홈페이지_www.papergaller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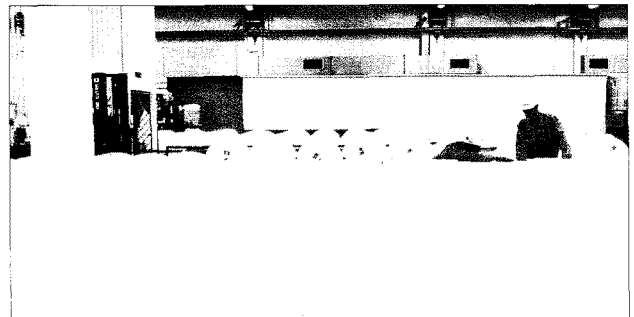
무림페이퍼, 고풍택 및 친환경 '네오하이글로스아트' 출시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는 최근 고급잡지,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에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네오하이글로스아트'를 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무림페이퍼의 '네오하이글로스아트'는 획일화 되고



규격화 되어있던 국내 아트지 시장에서 더 특별하고 남다른 적성을 원했던 고객들의 요구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기존 아트지에 비해 균일한 면성과 뛰어난 백지광택(83%±3), 우수한 급지 적성과 빠른 잉크 건조성까지 갖고 있는 네오하이글로스아트 백색도(brightness, 종이의 흰 정도)와 백감도(whiteness, 육안으로 봤을 때 희게 보이는 정도)를 더욱 향상시켜 고백색, 고풍택을 자랑한다. 무림페이퍼는 그 동안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온 고풍택 아트지 시장에 '네오하이글로스아트'가 공급되어 수입 대체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고풍택이라도 FSC 인증 펄프와 무염소(ECF) 표백 펄프를 사용해 뛰어난 친환경성을 자랑한다고 소개했다.

한솔제지, 500억 원 규모 신규 설비 투자 완료



한솔제지(대표 오규현)와 계열사 아트원제지는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각각 8월, 9월부터 본격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솔은 올해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해 5백억 원을 투입, 장항공장과 아트원제지 신탄진공장의 싱글코팅 설비를 더블코팅 설비로 교체했으며 이를 통해 한솔제지 아트지의 인쇄적성, 작업성 등 품질 수준이 한층 제고되는 것을 고객에게 보다 신뢰를 주는 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트원제지 신탄진공장은 트리플 코팅 효과를 통해 최고 수준의 아트지 공장으로서 새롭게 도약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솔제지와 아트원제지는 해외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더블코팅 아트지를 업그레이드된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솔제지, VIP고객 초청 행사 가저

한솔제지(대표 오규현)는 지난 9월 16일과 10월 13일, 각각 VIP 고객 60여명을 초청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솔오크밸리에서 골프 및 단합행사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VIP 고객 초청 골프 행사는 종이, 인쇄, 출판 등 지류 관련 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정보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으로 매년 연말경에 개최되어 왔다.

행사에 참가한 고객들은 한솔제지 오규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과 골프 라운딩을 즐긴 후에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한솔제지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 사항 등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솔제지는 지난 2009년 행사부터 아트원제지 주요 고객사 VIP도 초청해 그 규모 및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지회 및 우수 거래처 고객 대상 공장투어 실시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10월 9~10일과 15~16일 2회에 걸쳐 각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지회 대리점 직원 및 우수 거래처 고객을 대상으로 온산공장 초청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한국제지는 온산공장의 친환경적인 시설을 공개하여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경주 석굴암 일대와 직지사를 함께 둘러보는 등 고객과의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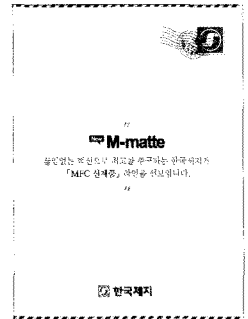
에코드라이브 실천 사회연대협약 체결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10월 6일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자동차의 온실가스를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에코드라이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

제, 사회, 문화계의 각종 단체와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에코드라이브 실천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제지, 프리미엄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배포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신제품 'M-matte 프리미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용 리플렛 3000부를 제작하고 영업사원을 통해 대리점, 실수요자 등 거래처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플렛에는 신제품 소개와 함께 M-matte 프리미엄 백색 및 미색 80, 90, 100g 평량별 용지 샘플을 수록했다. 한국제지는 이어 M-matte 하이벨크 지종의 리플렛을 제작하여 신제품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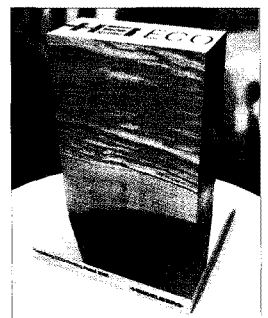
한국제지, 울산 산업문화축제 기업 홍보관 운영

한국제지 온산공장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울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된 제22회 울산 산업문화축제 기업 홍보 전시관 운영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울산 산업문화축제는 노사화합과 지역민의 기업 사랑운동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행사로 한국제지는 기업 홍보관 내에 회사소개와 함께 현재 생산 중인 하이퍼 전 지종의 제품을 전시했다. 한국제지는 이번 기업 홍보관 전시를 통해 울산 시민들이 한국제지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한 기업으로 기억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해외뉴스

하이델베르크 ECO 프린팅 어워드 참가자 모집

하이델베르크는 ECO 프린팅 어워드 2008의 성공에 이어 전 세계 인쇄 회사들을 대상으로 매엽 오프셋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인쇄를 위한 국제적 환경 어워드 대회에 초





청한다고 밝혔다. 5만 유로가 상금으로 걸려 있으며 “지속가능한 회사”와 “진보적 솔루션”의 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상은 재료와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사용, 환경 보호 및 환경을 인식한 경영 활동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성 측면은 회사 전체와 연관될 수 있으며 프리프레스, 인쇄, 후가공, 로지스틱스에서 뛰어난 솔루션이 될 수 있으며 수상자는 전체 산업에서 벤치마크가 되어야 하며 타사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활동과 솔루션을 도입하도록 독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하이델베르크 기계 부문 이사회 책임자 스테판 플란츠는 “하이델베르크 환경상의 목적은 세계 인쇄 산업과 인쇄회사들 간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며 “첫 환경 어워드의 수상자는 환경 친화적 사업적 성공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가 되었으며 하이델베르크는 이를 독려하고 지지하며 친환경 인쇄에서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델베르크 ECO 프린팅 어워드에는 최소 1대의 매엽 오프셋 인쇄기를 가동하는 어떤 인쇄 회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인쇄 회사는 어떤 재료(종이, 카드 혹은 포일)를 사용하는지에 관계 없이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국제적인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거쳐 2개 부문의 수상자를 결정하며 www.heidelberg.com/en/eco_award에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2011년 1월 31일까지 받게 된다. 수상식은 2011년 6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하이델베르크, 암스테덴 공장 25주년 기념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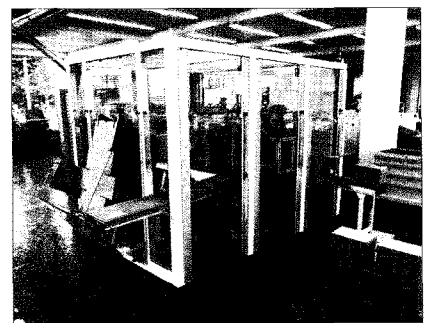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는 지난 10월 10일, 70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암스테덴 공장 가동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하이델베르크의 주물 및 대형 부품 제조 시설인 암스테덴 공장은 지난 1985년 8월, 3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가동에 들어가 하이델베르크 인쇄기의 사이드 프레임, 실린더 및 기초를 만들어 고품질 오프셋 인쇄기의 기반을 닦았다. 암스테덴 공장은 하이델베르크 제조 네트워크의 일부로 브란덴부르크(소형 부품 제조) 및 비슬로흐-발도프 공장(생산 및 조립)과 함께 하이델베르크의 주요 생산라인으로 활약해 왔다. 25년간 암스테덴 공장은 백만 톤에 달하는 주철과 백만 개 이상의 실린더를 생산했으며 이 공장에 대한 총 투자액은 4억 5천만 유로를 넘는다.

하이델베르크의 이사회 임원인 스테판 플란츠는 “하이델베르크는 암스테덴 공장에 투자를 지속할 것인데 그것은 여기서 생산되는 부품은 하이델베르크 인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부품의 품질과 정밀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다른 곳에서 이러한 부품을 구매하는 것은 하이델베르크에게 비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회사 내 이 공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하이델베르크는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핸드·몰딩 공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약 4백만 유로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델베르크, 케이스 팩커로 팩킹 자동화 지원

하이델베르크는 스티치마스터 ST 350과 스티치마스터 ST 450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케이스 팩커를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밴딩 기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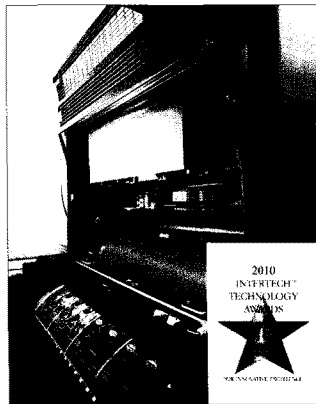
스태커 아래 추가될 수 있는 인라인 장치로 구성되어 중철된 제품의 팩킹 작업을 자동화해 최대 시간 당 300 박스까지 처리할 수 있어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하이델베르크는 분석에 따르면 60% 이상의 중철물이 박스에 포장되며 이를 위해 중철기에서 스태커에서 서서 제품을 받아 수작업으로 박스에 놓기 때문에 기계의 속도를 제한하기 쉬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이델베르크는 케이스 팩커는 11

월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인쇄사나 후가공 회사에 적절하다고 소개했다. 하이델베르그가 개발한 케이스 팩커는 자동으로 묶여진 제품들을 집어 배열하고 박스에 여러 층으로 쌓아 팩킹한다. 박스는 케이스 팩커에 펼쳐져 급지되고 나서 제품들이 쌓이면 모양이 만들어져 조립되는 과정을 거친다. 박스는 골판지로 만들어지고 마음대로 펼쳐지고 닫힐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는데 케이스 팩커는 마감된 박스를 인체공학적인 높이에 놓게 된다. 현재 2가지 크기의 박스, 305×215×220mm 및 320×215×220 mm가 제공된다.

프린넥 인스펙션 콘트롤, PIA 인터텍 어워드 2010 수상

하이델베르그는 자사의 인라인 용지 검사 시스템인 프린넥 인스펙션 콘트롤(Prinect Inspection Control)이 미국 인쇄 협회에서 수여하는 인터텍 테크놀로지 어워드 2010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상으로 하이델베르그는 지난 4년간 연속해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국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프린넥 인스펙션 콘트롤의 고해상 카메라 시스템이 많은 다른 제품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일찍 인쇄 에러와 재료의 문제를 판별할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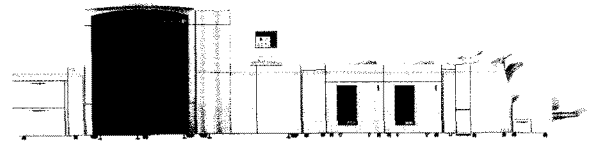


프린넥 인스펙션 콘트롤은 불량 용지는 배지부에 도착 시 이미 표시가 되어 있어 에러가 발견되자마자 혹은 이후에 제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후처리 비용이 감소되어 고객의 고품질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하이델베르그의 이사회 임원인 스테판 플란츠는 “하이델베르그 제품이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터텍 어워드를 수상한 횟수는 업계 내 하이델베르그가 기술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하이델베르그 기계와 서비스가 고객을 더욱 확실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P, 신임 CEO겸 대표에 레오 아포테커 선임

HP는 지난 10월 4일 레오 아포테커(Leo Apotheker)를 신임 CEO 겸 대표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SAP에서 CEO를 지낸 바 있는 아포테커 신임 CEO는 SAP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세계 1위로 성장하는 과정에 건인차 역할을 했다. 아포테커 신임 CEO는 SAP 역사상 가장 중대한 변화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작업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2004~2009년에 걸쳐 18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소프트웨어 매출 성장률을 달성하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 조치는 11월 1일을 기해 효력을 발생한다.

후지제록스, 굿디자인상 수상



후지제록스는 최근 재단법인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에서 주최하는 2010년도 굿디자인상(G마크)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제품은 중소기업용 풀컬러 디지털 복합기와 일반 오피스용 풀컬러 복합기를 비롯, 하이엔드 시장을 겨냥한 컬러 온디맨드 퍼블릭 시스템의 3제품이라고 후지제록스는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제품은 지난 2008년 새 CI를 도입한 이래 후지제록스와 제록스코퍼레이션이 공동으로 개발한 월드와이드한 신세대 프로덕트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다. 후지제록스는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기계와 접하는 영역에 인상적인 색상을 배치 감각적인 느낌을 갖도록 했으며 디자인도 이를 토대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작 기능을 간단하게 하는데 주력하여 입체적인 아이콘으로 새롭게 디자인 했으며 사용하기 쉽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조작 패널을 구현하는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후지제록스는 앞으로도 손쉬운 조작성과 환경조화, 고객의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쓰면 쓸수록 기분 좋은 디자인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